



숲속놀이, 숲명상, 테라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비자숲힐링센터. 사진=제주도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지친 일상에 '작은 심표'가 필요하다면...



제주 핫플레이스 (57) 비자숲힐링센터

2017년 문 열어... 옛 청소년야영장 자리 어린이 놀이터부터 편백테라피실까지 다양한 놀이·체험 채워넣은 힐링공간

거대한 비자나무 숲을 곁에 둔 '비자숲힐링센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센터)는 몸과 마음에 심을 선물한다. 이즈음, 가을이 내려앉은 비자림을 걷다 걸음을 멈춰 쉬기에도 부담이 없다.

2017년 문을 연 비자숲힐링센터는 제주시 구좌읍의 옛 비자림청소년야영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아토피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환경부가 힘을 모았다.

센터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이름처럼 '힐링'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채워 넣었다. 숲속놀이, 숲명상, 테라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길을 끌고 있다. 올해에만 교육·체

험과 시설 프로그램 참가 인원이 4만5400명(10월 기준)을 넘는다.

센터 안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다. 어린이를 위한 색다른 놀이터부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편백테라피실까지 갖추고 있어 가족들이 함께 휴식을 하기도 좋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색다름을 담았다. 일곱 살 이하의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아랑이 놀이터'는 나무로 꾸며진 친환경 놀이공간이다. 싱그러움 나무 향을 느끼며 책 읽기, 클라임, 편백 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놀이감이 준비됐다. 24개월 이하의 어린 아이를 위한 베이비놀이터도 갖췄다.

7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다랑이놀이터'는 색색의 그물로 만든 놀이기구로 아이들의 시선을 잡는다. 거대한 그물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탐험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깨운다.

어른을 위한 휴식 공간도 충분하다. 건물 3층에 있는 '건습식 테라피 체험'이다. 남녀 공간이 따로 구분된 습식 테라피 체험에선 편백나무로 만든

1인용 욕조에 몸을 담구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다. 이때 쓰이는 물은 제균 작용을 하는데,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건식 테라피 체험에선 열을 통한 반신욕 족욕을 비롯해 안마의자, 힐링베드, 아쿠아베드, 척추종 합자극기, 승마운동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체성분·스트레스·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검사실과 차(茶)의 뜨거운 열기로 명상을 하는 '차훈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다양한 방법으로 심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용 시간과 요금을 확인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아랑이·다랑이 놀이터는 주중과 주말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3시, 오후 3시30분~5시30분으로 나눠 이용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2000원이다. 건습식테라피체험의 이용 시간도 동일하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센터는 매주 일요일은 문을 닫고 월요일엔 어린이 놀이터만 개방한다. 자세한 사항은 비자숲힐링센터 홈페이지(www.jejuatopycenter.kr)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4) 782-8963.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29) 고성기 시조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풍랑을 피해 제주시 한림항으로 모여든 어선들. '내 사랑 한림항'을 노래했던 고성기 시인에게 섬과 바다는 고향의 다른 이름이다.

"제주 밖 어디서든 파란 파도소리"

우린 작은 섬 같은 존재들
아름답기에 더 슬픈 고향
겨울에도 식지 않는 바다

그는 섬을 떠나야 섬이 보인다고 했다. 제주 밖에서도 그곳이 어디든 제주의 파란 파도소리가 들린다면 시인이다.

'가파도를 보러 갔다가/ 마라도만 보고 왔다// 종로 한복판에 서도/ 일렁이는/ 모슬포 바다// 나 또한/ 작은 섬임을/ 나를 버려야 알았다.'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에서)

인용시를 표제로 단 첫 시집 (1992)을 냈던 시조시인 고성기. 시인은 1987년 문단에 발을 디딘 후 5년 만에 시집을 묶으며 '아름답기에 더욱 가슴아픈 제주를 노래하고 싶었다'고 했다. 시집에 펼쳐진 시편들은 그래서 아름다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제주에 바쳐지고 있다.

그는 '섬을 떠난 사람들은'에서 '파도소리에도/ 웃이 젖는다'며 '일상의 먼지를 털고/ 저물어 가는 창을 열면// 집어등/ 타는 불빛을/ 쫓아가는 멀치며.'를 읊었다. 짙물에도 정이 드는 것마음에서 자란 시인은 물빛보다 추억이 더 파랄다는 '내 사랑 한림항'을 불러내 조개잡던 보조개 소녀,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향하던 고깃배, 비양도 등대를 그림의 한 장면처럼 그렸다. 섬과 살을 맞댄 바다를 떠올리면 가난의 기억이 먼저 밀려들지만 거기엔 울림에 자라던 호박순, 된장맛 익어가는 자리회가 있었다.

하지만 겨울에도 식지 않는

'제주 바다'는 '활화산 터트리기도/ 토할 게 아직 남아' 있다. '한라산 매미' 속 할머니의 사연 때문인 걸까. 숲속에 가려 붉은 피만 흘렸던 4월, 할머니는 '내 아들 살려내라' 소리쳤다. 고통스런 마음을 땅속에 묻고 긴 세월 속으로 울어와 했던 이가 그뿐이겠나.

아픔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날의 '고향'은 역사의 칼날에 베인 가슴을 또한번 후벼 판다. '나지막한 초가집들/ 품어안던 쌍둥이 폭낭// 포크레인 퍼런 날에/ 뿌리까지 뽑히더니// 이제는/ 아스팔트 위/ 들깨처럼 날린 불신.'에 이르면 그 연유가 짐작된다. 빈 집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정은 가시보다 더 아프다.

그래도 힘이 되어주는 건 섬들이다. 그의 시에 드러난 섬은 단순히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작은 육지'의 의미를 넘어선다. 섬은 곧 사람이다. 표제지에서 '너 또한/ 작은 섬임을/ 내가 떠나야 알았다'고 했을 때 그 섬은 '너'라는 존재를 일컫는다. 누군가의 부재는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실감한다. 곁에 있던 이가 그토록 소중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섬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애정은 10년 뒤 내놓은 '가슴에 닿으면 현악기로 떠는 바다' (2002)에도 이어진다. '부서질 줄 아는 사랑/ 외로운 섬/ 파도 됩니다/ 바다, 그 아무리 넓어도/ 발끝까지 어루만져/ 그리움/ 보석처럼 빛나/ 별로 뜨는/ 섬 하나/ 섬 둘'. 시집 첫머리에 놓인 '파도'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RVA (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재창조!!

제5회

제주



농어촌체험 페스티벌

행사참여하시는 분들께
계란(4구) 증정
*1일 1000set 한정

2019 11.16(토)~17(일) 2일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광장

체험프로그램

- 13:00~13:30 명도양 나무관통목걸이만들기
- 13:40~14:10 소갈리 목공예향(휴대폰거치대)
- 14:20~14:50 정수리 양화체험
- 15:00~15:30 수원리 테우배모형만들기
- 15:40~16:10 조수리 옛날 장작 고구마 쫄기(구워먹기)
- 16:20~16:50 무릉리 초코렛과자만들기

17일

- 11:00~11:30 신홍리 동백공예체험
- 11:40~12:10 온평리 소라피리만들기
- 12:20~12:50 가시리 우드버닝
- 13:00~13:30 신홍리 순수간 천연염색
- 13:40~14:10 하례리 강굴빵 샌드위치
- 14:20~14:50 하포마을 강굴정만들기

김장 담그기 show와 함께하는 체험(with 돌베고기)

시간: 17(일) 오후2시 선착순 30명
사전접수(772-5505) 및
현장접수(행사본부석)



간이특별혜

- 단호박 치즈 구이
- 소라구이
- 떡새우 구이
- 소떡, 산적, 오징어 등



문의 772-5505

*모든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